



Report 사회지표 || 2021년 6월 17일

“한국인 사회의식 심층분석 보고서”

케이스탯

2021년 6월 사회지표

■ 월 정기 지표

- _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 ‘잘못된 방향’, 여전히 우위
- _ 경제 방향성 : 12개월 연속 부정평가 우세
- _ 정부 신뢰도 : ‘신뢰 안한다’ 우위 여론 지속
- _ 정부정책 만족도 : 낮은 만족도, 12개월 연속 유지
- _ 정당 호감도 : 마음에 드는 정당 ‘없다’ 여론 높아
- _ 다음 달 개인 소득 전망 : 다소 개선되는 모습
- _ 다음 달 개인 지출 전망 : 이전 달과 거의 비슷
- _ 부동산 가격 전망 : ‘지금보다 오를 것’ 58%
- _ 주식 가격 전망 : ‘지금보다 내릴 것’ 18% 불과

■ 6월 특별지표 : ‘행복’ 관련 국민의식

- _ 개인 행복도 : ‘걱정 많았다’ 우위 여론 지속
- _ 상대적 행복도 : 주변사람 ‘나보다 행복’ 66%
- _ 5년 후 개인 삶 전망 : ‘지금보다 나빠질 것’ 16%
- _ 5년 후 대한민국 전망 : ‘지금보다 나빠질 것’ 22%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1년 6월 4일(금) ~ 6월 6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 본 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38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3.04\%$
가 중 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1년 5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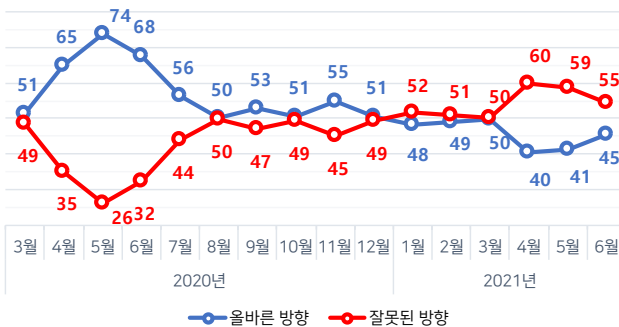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월 정기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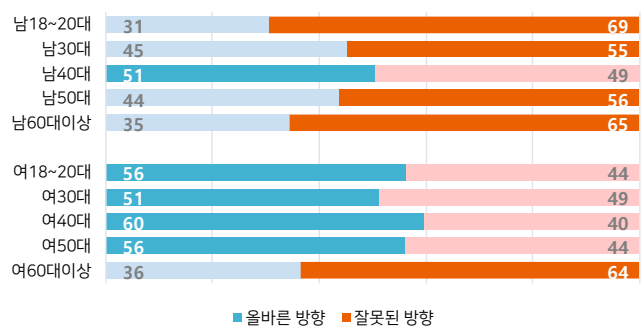
□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 '잘못된 방향', 여전히 우위

- 이번 6월 조사에서 대한민국이 전반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의견이 소폭(4%p) 상승했으나, 4월을 기점으로 조성된 '잘못된 방향' 우세 흐름이 여전히 유지됨
 - 2021년 6월 조사결과 '잘못된 방향' 55% vs '올바른 방향' 45%로, 전 달에 비해 '올바른 방향' 의견이 소폭 상승함
- 계층별로 살펴보면 여성층을 중심으로 '올바른 방향'이라는 의견이 우위를 보여, 국민전체적인 소폭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남
 - 남성층은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잘못된 방향'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남자40대만 '올바른 방향'이 소폭 우세함
 - 이에 비해 여성층의 경우 여자60대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올바른 방향'이라는 의견이 우위를 보임
- 이외에 '잘못된 방향'이 우세한 계층은 △경기.인천, 충청, TK, PK △보수층, 중도층 △자영업자,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주부, 은퇴.무직자 △개인이익중시층, 중간층 등임
- '올바른 방향'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호남 △진보층 △학생 △사회이익중시층 등임
 - 서울지역의 경우 '올바른 방향'과 '잘못된 방향'이 공히 50%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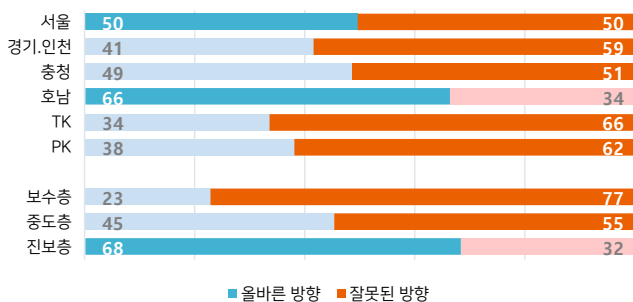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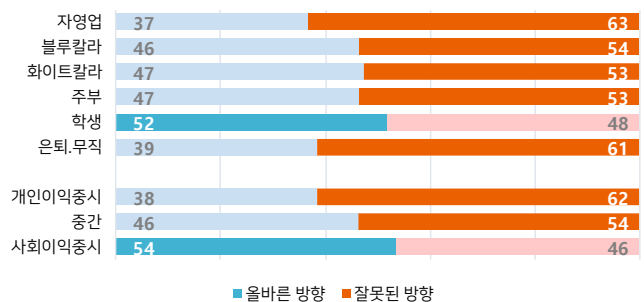
6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6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06.06조사,단위:%)



6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 직업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1.06.06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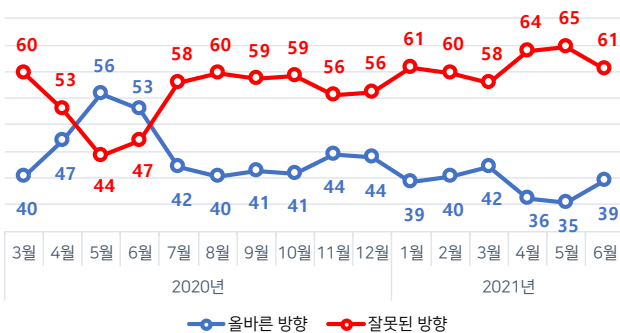
Kstat Point

- ☑ 4.7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여권이 원내대표 선거에 이어 당 대표 선거에서도 별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4.7 재·보궐선거 여론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임
- ☑ 여성층을 중심으로 '올바른 방향'이 우세한 것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비교적 원활히 진행된 결과로 분석됨 : 한미 정상회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고,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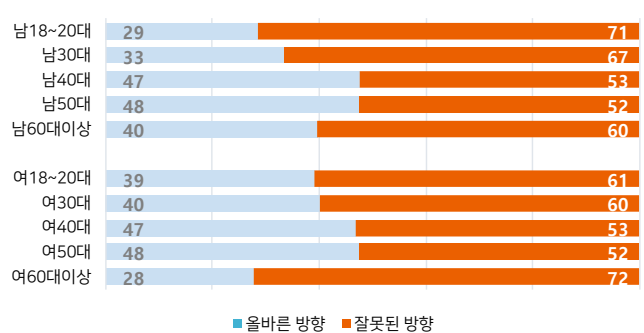
□ 경제 방향성 : 12개월 연속 부정평가 우세

- 경제 방향성에 대한 국민여론은 12개월 연속 부정평가 우세가 유지되고 있음
- 6월 조사결과 ‘올바른 방향’이 4%p 상승했으나, ‘잘못된 방향’과의 격차는 여전히 크게 유지됨
 - 6월 경제 방향성 조사결과 ‘잘못된 방향’이 61%로, ‘올바른 방향’(39%)에 비해 22%p 높음
- 거의 모든 계층에서 ‘잘못된 방향’이 우세하고, ‘올바른 방향’이 우세한 계층은 호남과 진보층에 그침
 - 이는 지난 5월에도 동일한 양상이었음
- ‘잘못된 방향’ 의견이 특히 우세한 계층은 △남자 2030세대 △여자 60대이상 △TK, PK △보수층 △은퇴.무직자 △개인이익중시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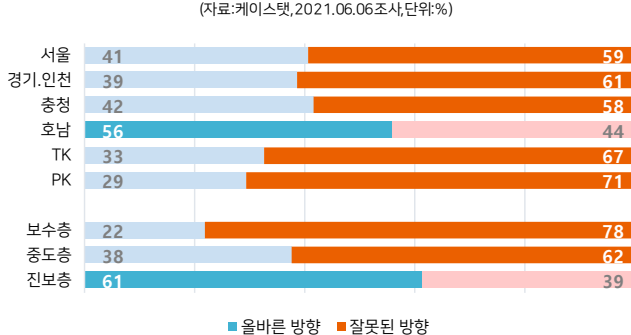
경제 방향성 평가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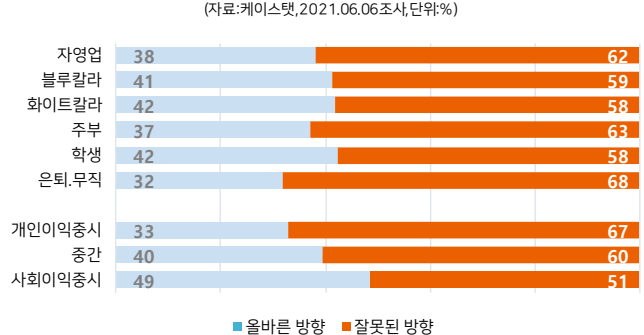
6월 경제 방향성 평가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6월 경제 방향성 평가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06.06조사,단위:%)



6월 경제 방향성 평가 : 직업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1.06.06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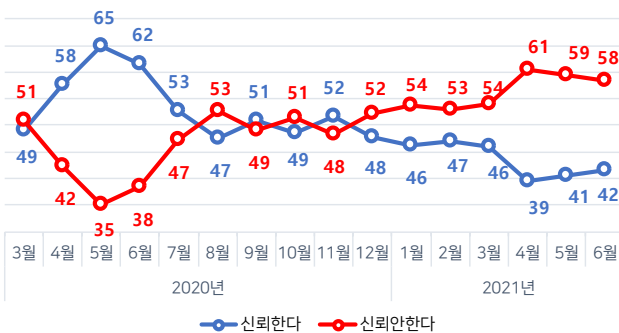
Kstat Point

- ☑ 우리나라 국가경제에 대한 각종 지표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음
 - : 6월 6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1/4분기 경제성장률은 1.7%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함
 - : 실질 국민총소득(GNI)도 전기 대비 2.4% 증가했고, 고용 역시 전년 대비 2.3% 증가함
 - : 한국은행은 이러한 1/4분기 경제성적표를 토대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4.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함
- ☑ 그러나 거시경제 지표의 급격한 호조에 불과하고, 국민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유지하고 있음
- ☑ 거시지표와 국민의식 간의 이러한 차이는 이른바 선진국형 ‘저성장 터널’에 진입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 저성장 극복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현 정부가 자초한 결과라는 지적임
 - : 저성장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으며, 코로나19 극복 비전으로 제시되었던 ‘한국판 뉴딜’은 별다른 후속 조치나 성과발표 없이 묻히면서 국민의 경제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것임
- ☑ 이러한 상황에서는 거시경제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경제 방향성’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평가는 여전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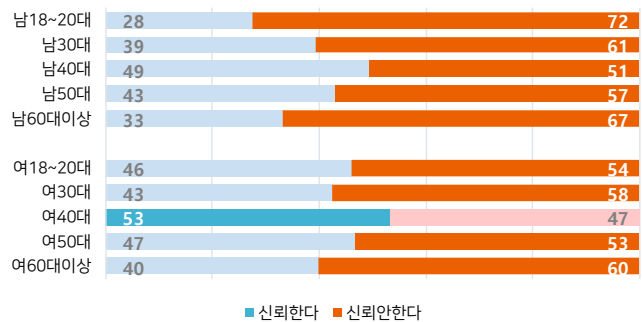
□ 정부 신뢰도 : '신뢰 안한다' 우위 여론 지속

- 정부 신뢰도는 지난 5월과 큰 차이 없는 가운데, '신뢰 안한다'는 의견이 58%로 우위를 유지함
 - 6월 정부 신뢰도는 '신뢰 안한다' 58% vs '신뢰 한다' 42%로 부정여론 우위가 지속되고 있음
-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신뢰 안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18~20대, 남자 60대이상 △TK, PK △보수층 △자영업 종사자 △개인이익중시층 등임
- '신뢰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여자 40대 △호남 △진보층 △사회이익중시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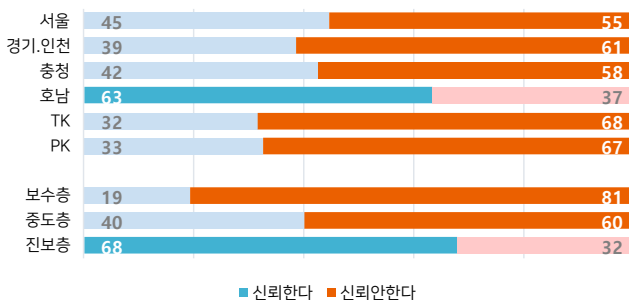
정부 신뢰도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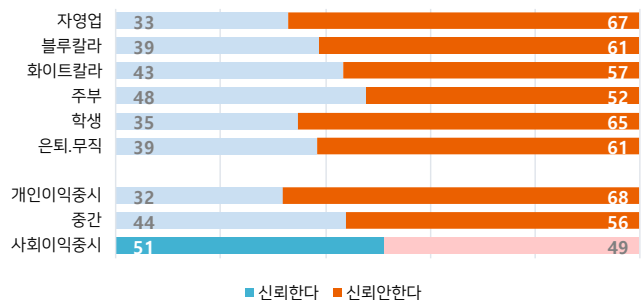
6월 정부 신뢰도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2021.06.06조사,단위:%)



6월 정부 신뢰도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06.06조사,단위:%)



6월 정부 신뢰도 : 직업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1.06.06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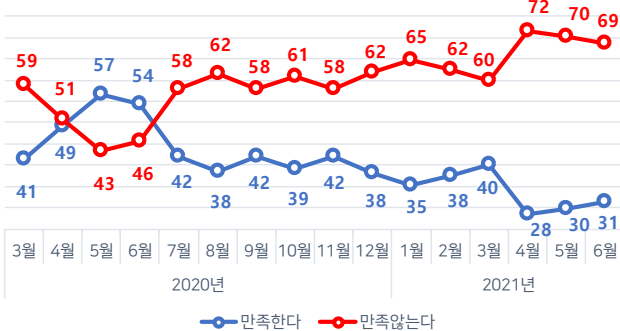
Kstat Point

- ☑ 정부 신뢰도에 있어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성/연령대는 남자 18~20대와 남자 60대이상으로, 이들이 현 정부에 가장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있음
 - : 이들은 사회조사를 시작한 2020년 3월부터 일관되게 정부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함
- ☑ 현 정부 입장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대부분 시기 굳건히 정부를 지지하던 성/연령대와 계층의 이탈임
 - : 성/연령대로는 남자 3040세대와 여자 2040세대이고, 직업으로는 화이트칼라 계층인데, 이들의 정부 신뢰도가 매우 하락해져 있음
 - : 이번 조사에서 '신뢰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여자 40대에 그치고, 화이트칼라 계층에서도 부정여론이 우세함
- ☑ 특히, 시기적으로 볼 때, 이들이 흔들리던 시기는 이른바 '추-윤 갈등'이라 불린,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기간이었음(2020년 8월을 기점으로 여론이 흔들림)
 - : 국정을 책임지는 여권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기보다 갈등을 양산하는 모습을 보이고, 같은 기간 부동산 가격 폭등 와중에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장담하면서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임
- ☑ 이렇게 볼 때 지금 시기 정부 입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안정'과 '책임성'이라는 지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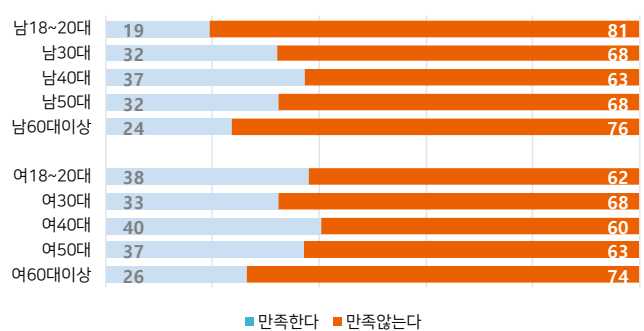
□ 정부정책 만족도 : 낮은 만족도, 12개월 연속 유지

- 정부정책에 ‘만족한다’는 의견은 31%이고, ‘만족 않는다’는 의견은 69%로 큰 격차가 유지됨
 - 정부정책 만족도는 사회조사를 시작한 지난 7월 부터 12개월 연속 부정의견이 우세함
- 거의 모든 계층에서 ‘만족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하고, ‘만족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진보층에 불과함
 - 지난 5월에는 ‘만족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이 호남과 진보층이었으나, 이번에는 호남에서도 부정의견이 우세함
- ‘만족 않는다’는 의견이 특히 우세한 계층은 △남자 18~20대, 남자 60대이상 △여자 60대이상 △TK △보수층 △은퇴.무직자 △개인이익중시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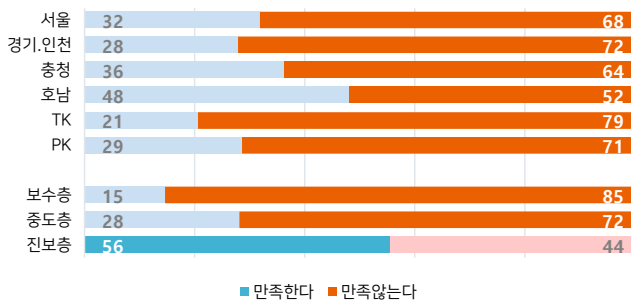
정부정책 만족도 추이: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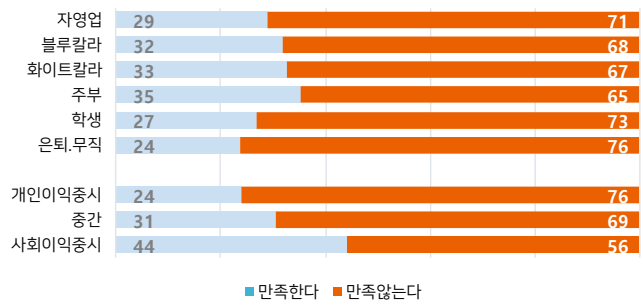
6월 정부정책 만족도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6월 정부정책 만족도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1.06.06조사,단위:%)



6월 정부정책 만족도 : 직업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1.06.06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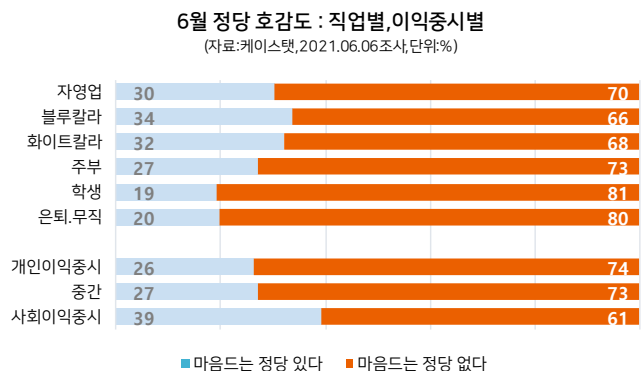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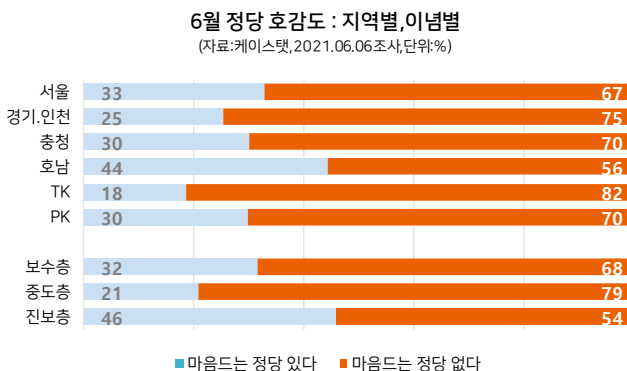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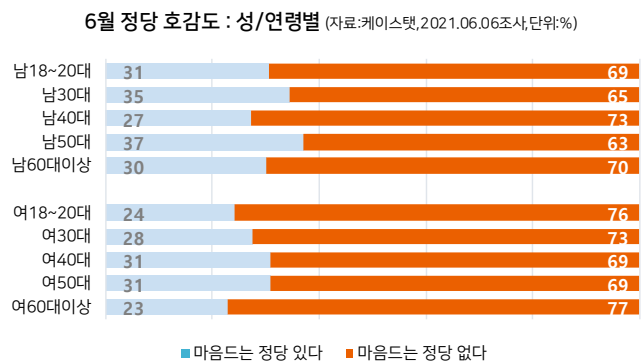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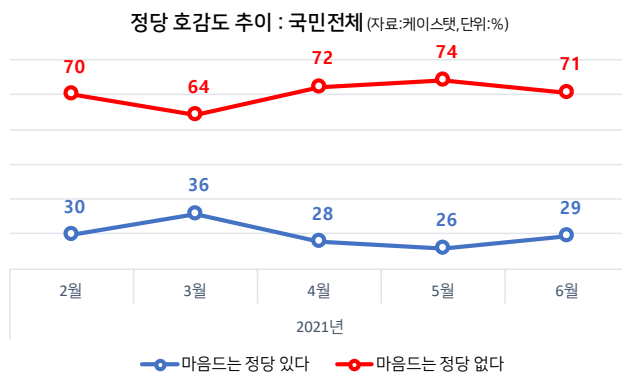


Kstat Point

- ☑ 현 시기 정부정책에 만족하는 계층은 진보층이 유일하고, 이러한 흐름이 급격히 바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 ☑ 그리고 임기 5년차 라는 점과 차기 대통령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감안할 때 현 정부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유일한 것으로 판단됨
 - : 대통령선거가 본격화될수록 정책 주도권은 당과 차기 대통령 후보에게 급속히 쏠릴 것임
- ☑ 이러한 상황을 종합할 때 현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목표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임
 - : 현재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은 23.02%로, 최근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 주요국에 비해 낮음
 - : 접종률 1위는 캐나다로 64.41%가 접종을 마쳤고, 다음은 이스라엘 63.27%, 영국 61.21%, 바레인 60.15%, 몽고 57.71%, 미국 51.85% 등임 (자료, Our World in Data, 2021년 6월 13일 현재)
- ☑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중요한 백신 정책, 접종 현황 등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모습을 부각하는 것이 바람직함
 - : 바이든 대통령은 중요한 백신 정책 등을 직접 브리핑하면서 코로나19 종식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정당 호감도 : 마음에 드는 정당 '없다' 여론 높아

- 우리 국민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정당은 '없다'는 의견이 71%로 매우 높고, '있다'는 29%에 그침
 - 조사를 시작한 지난 2월 이후 이러한 흐름은 지속되고 있음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마음에 드는 정당이 없다'는 의견이 우세함
- '없다'는 의견이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40대 △여자 2030세대, 여자 60대이상 △경기.인천, TK △중도층 △주부, 학생, 은퇴.무직자 △개인이익중시층, 중간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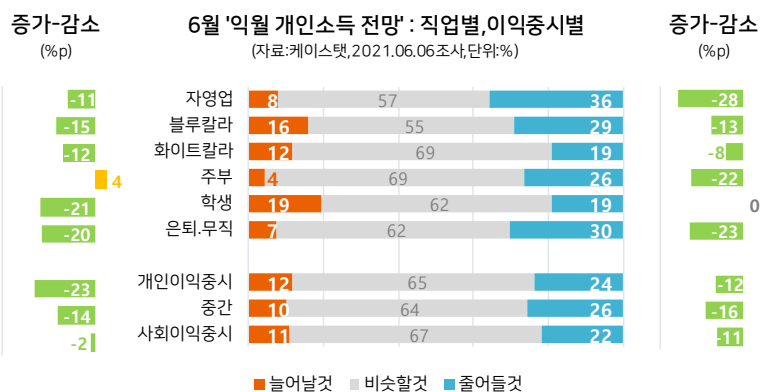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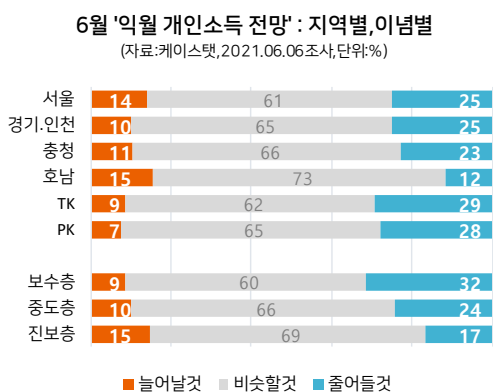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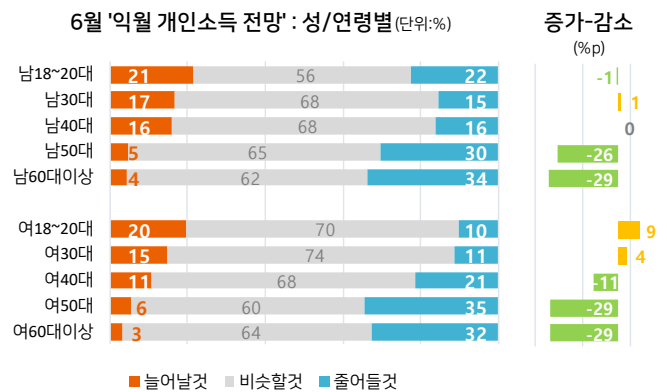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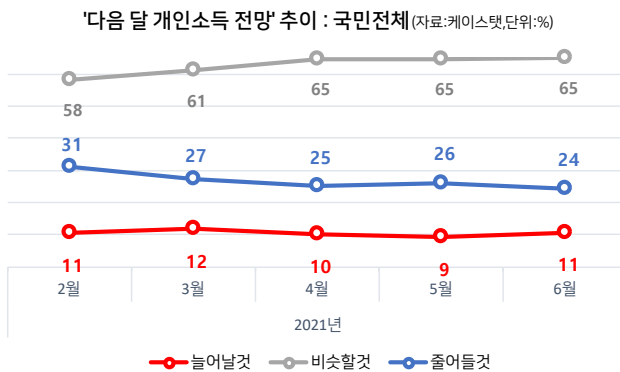


Kstat Point

- ☑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출현은 한국 정치사에 기록될 만큼 커다란 사건임
 - : 30대에 국회의원 경험이 전무한 당 대표는 정당 사상 최초이고, 그러한 역사적 사건이 보수정당에서 일어났다는 점이 사건의 무게감을 더욱 키우고 있음
- ☑ 이른바 '이준석 현상'은 지금의 정당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임
 - : 즉, 이준석 신임 당 대표 개인에 대한 지지라기보다 기성 정당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기존 여의도 정치인과 '매우' 다른 이준석 대표를 통해 분출된 것임
- ☑ 또한 이러한 사건이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것은 탄핵 이후 당 주도세력이 붕괴되었기에 가능했다는 지적임
 - : 이른바 '보수층 궤멸' 흐름 속에 국민의힘은 뚜렷한 리더십 없이 부유했고, 결국 김종인 비대위체제가 출범함
 - : 김종인 대표 퇴진 이후 재차 리더십 공백이 발생, 유연하고 개방적인 상황이 조성되면서 이번이 가능했다는 분석임
- ☑ 이에 비해 민주당은 친문·586세력 등이 오랜 기간 당을 주도하면서 경직되고 폐쇄적인 정당이 되었다는 평가임
 - : 여권이 이준석 대표 당선 이후 '젊은 인물 기용'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핵심은 정당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직시하고 당 전체의 유연성 강화와 개방성 확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임

□ 다음 달 개인 소득 전망 : 다소 개선되는 모습

- 다음 달 개인 소득 전망 추이를 보면,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조금씩 증가하고, '지금보다 줄어든 것'이라는 응답은 조금씩 감소함
 - 6월 조사에서는 '지금과 비슷할 것' 65%, '지금보다 줄어든 것' 24%, '지금보다 늘어날 것' 11% 순으로 조사됨
- '늘어날 것'에서 '줄어든 것'을 뺀 '차이'는 국민 전체적으로 -13%p를 기록, 5월에 비해 4%p 하락하는 등 다소 개선되는 모습임
- 대부분의 계층에서 '차이'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특히 마이너스 수치가 큰 계층은 △남자 5060세대 △여자 5060세대 △TK, PK △보수층 △자영업자, 주부, 은퇴.무직자 등임
- 차이가 플러스를 기록한 계층은 △남자 30대 △여자 2030세대 △호남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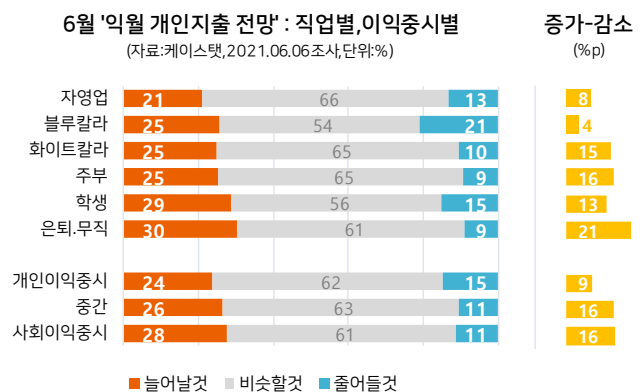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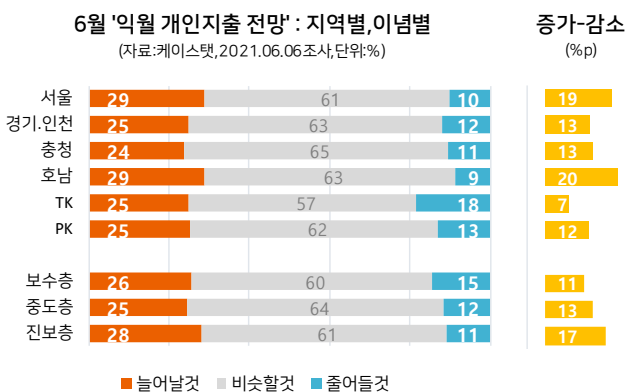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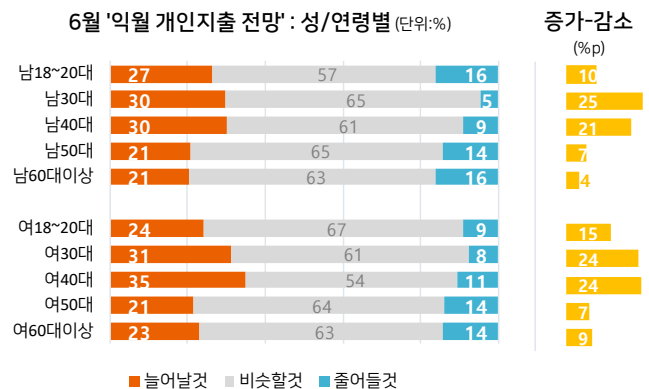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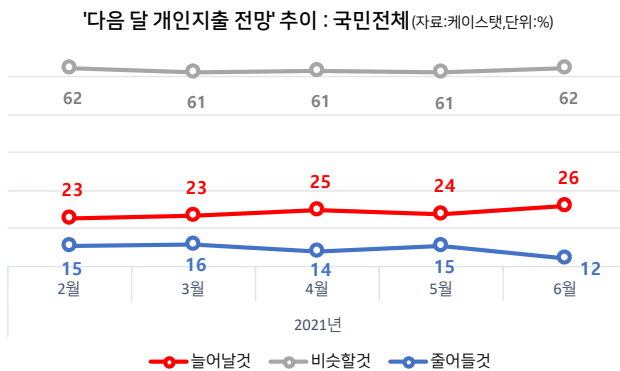


Kstat Point

- ☑ 다음 달 소득이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늘어나고, '줄어든 것'이라는 응답이 줄어든 것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이 다소 개선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 : 여전히 방역조치가 진행되고 있지만, 서서히 일상이 회복되어 가면서 코로나19 직후의 경제적 충격에서 벗어나는 흐름으로 분석됨
- ☑ 그러나 여전히 '증가'에서 '감소'를 뺀 수치는 대부분의 계층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해 완전한 일상 회복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다음 달 개인 지출 전망 : 이전 달과 거의 비슷

- 다음 달 개인 지출 전망을 보면, 조사를 시작한 2월 이후 지금까지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임
 - 6월 조사결과,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62%, '지금보다 늘어날 것' 26%, '지금보다 줄어든 것' 12%로 큰 차이가 없음
 - 증가에서 감소를 뺀 '차이' 역시 지속적으로 플러스를 기록하는 흐름이 유지됨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차이'(늘어날 것 - 줄어든 것)가 플러스를 기록함
- 플러스 수치가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3040세대 △여자 3040세대 △서울, 호남 △은퇴.무직자 등임
- 상대적으로 플러스 수치가 낮은 계층은 △남자 5060세대 △여자 5060세대 △TK △자영업자, 블루칼라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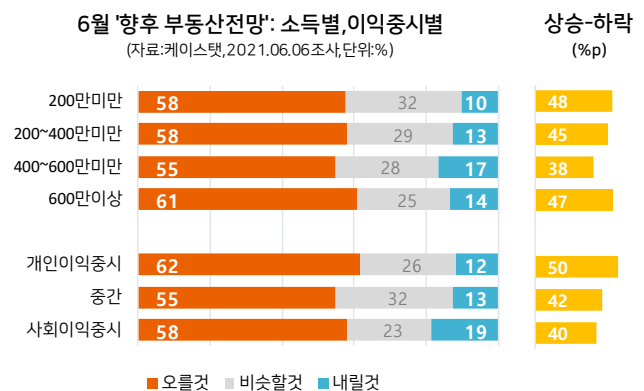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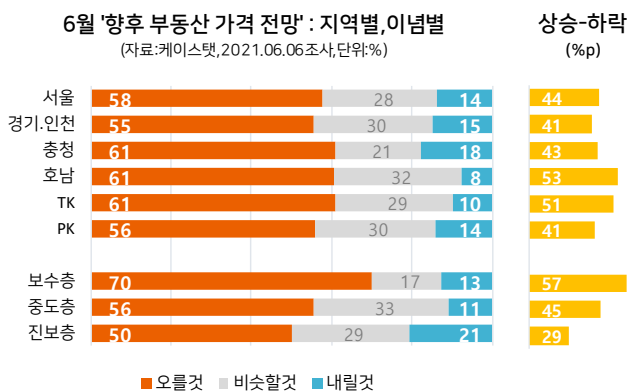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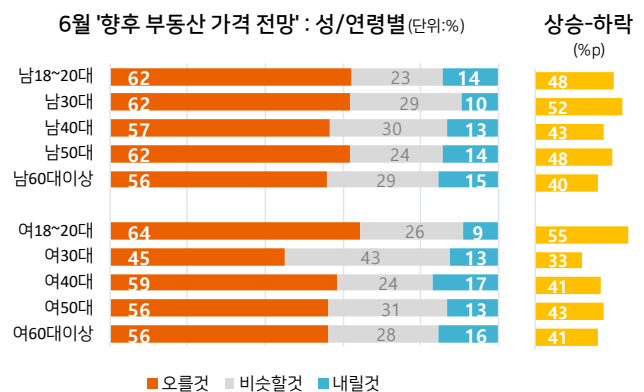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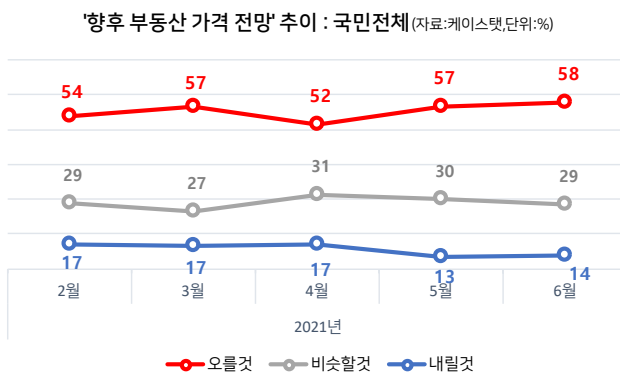


Kstat Point

- ☑ 다음 달 지출에 대한 전망은 조사 이후 지금까지 거의 달라지지 않고 있어, 여전히 국민들의 일상은 코로나19 영향력 아래 있는 것으로 보임
 - : 소득 전망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지출 전망은 변화가 없어, 전체적으로 국민들은 코로나19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것으로 분석됨
- ☑ 또한 소득은 줄고, 지출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의 통계적 표현인 '가계부채 증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금리 인상 등이 이뤄질 경우 가계의 부담이자,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 1분기 가계부채는 1년 전보다 9.5% 증가한 1,765조 원으로, 코로나19 이후 분기 기준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함

□ 부동산 가격 전망 : '지금보다 오를 것' 58%

- 향후 부동산 가격 전망을 대해, 국민 중 58%는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고 응답함
 -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29%이고, '지금보다 내릴 것'이라는 응답은 14%에 그침
- 그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국민들은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 계층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차이'(오를 것 - 내릴 것)가 플러스를 기록,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일치된 견해를 피력함
- '차이'가 플러스를 기록한 계층 중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2030세대, 남자 50대 △여자 18~20대 △호남, TK △보수층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600만원 이상 고소득층 △개인이익중시층 등임
- 플러스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은 △여자 30대 △진보층 △400~600만원 미만 소득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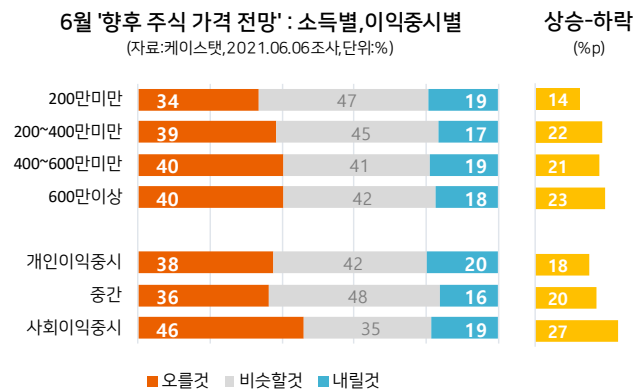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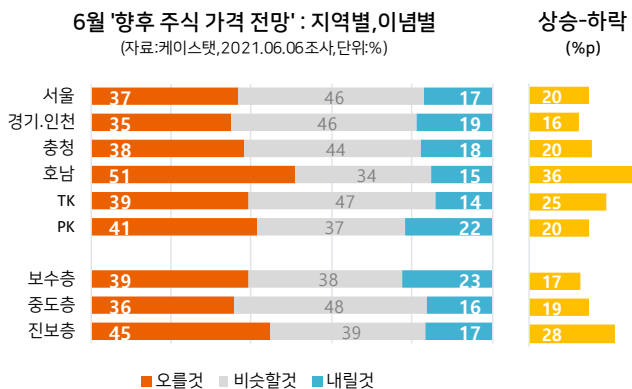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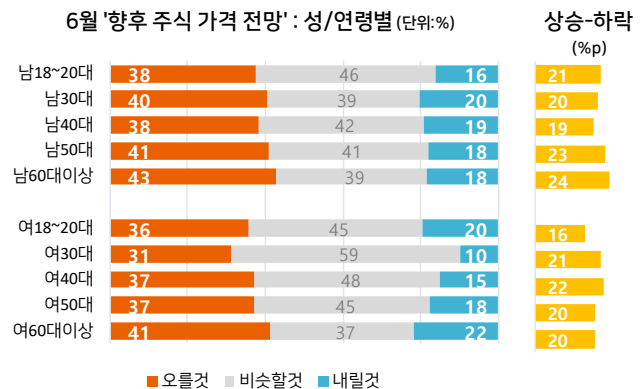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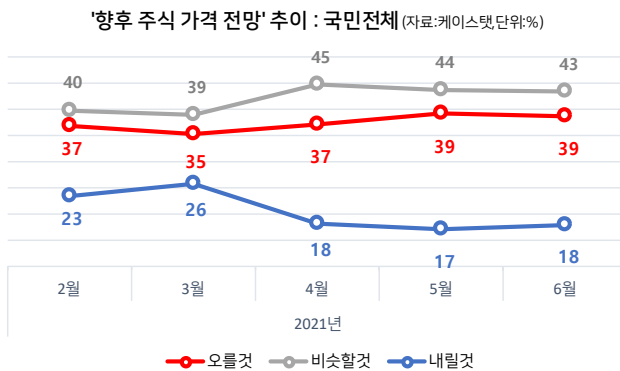


Kstat Point

- ☑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잠시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다, 최근 다시 상승 폭이 커지고 있음
 - :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첫째 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지난주 104.6보다 3.2포인트 더 오른 107.8로 9주 연속 기준선(100)을 넘음
- ☑ 좀처럼 꺾이지 않는 부동산 가격 상승세인데, 국민여론은 이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음
 - :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 별개로 시장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됨

□ 주식 가격 전망 : '지금보다 내릴 것' 18% 불과

- 국민 대다수는, 주식이 지금과 비슷하거나(43%), 오를 것(39%)으로 생각함
 - '지금보다 내릴 것'이라는 응답은 18%에 불과함
- 2월 이후 추이를 보면, 주식 가격이 '내릴 것'이라는 응답은 감소하고,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증가하는 흐름임
- '오를 것'에서 '내릴 것'을 뺀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플러스를 기록, 계층과 무관하게 주식 시장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남
- 플러스 수치가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5060세대 △호남, TK △진보층 △사회이익중시층 등임
- 플러스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은 △여자 18~20대 △경기.인천 △보수층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개인이익중시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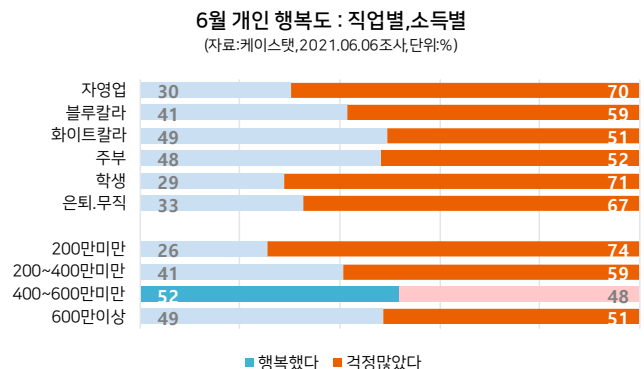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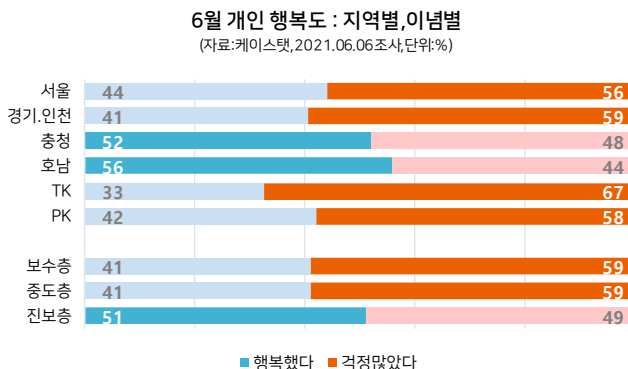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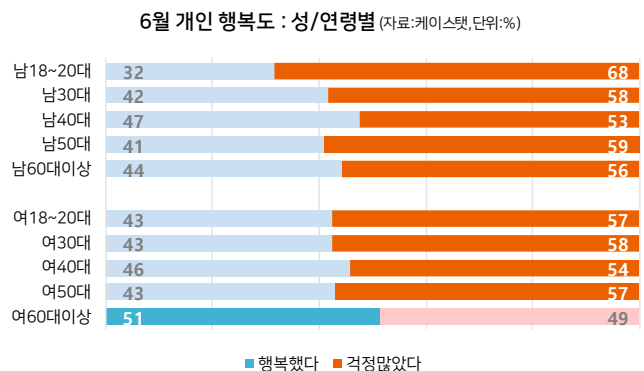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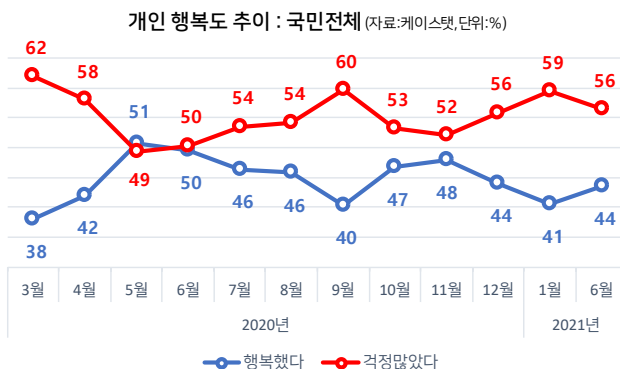
Kstat Point

- ☑ 가상화폐(비트코인 등) 급락으로 다시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증가세를 보이고, 이에 따라 코스피 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주식시장은 매우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 최근 한 달간 비트코인 가격은 약 40% 하락하고, 코스피 지수는 한 달간 약 1.2% 올라 상승세를 유지함
 - : 13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6월 들어 11일까지 코스피·코스닥 시장 일평균 거래대금은 27조 5,226억 원으로 지난달(25조 3,861억 원)보다 8.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됨
- ☑ 재테크 열풍과 비교적 적은 돈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주식시장의 장점이 결합되면서 주식 열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6월 특별지표 : '행복' 관련 국민의식

□ 개인 행복도 : '걱정 많았다' 우위 여론 지속

-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 국민들의 '행복도'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선생님께서서는 어제 하루를 돌아볼 때 행복하셨어요, 아니면 걱정이 많으셨어요?” 라는 질문에 ‘걱정이 많았다’는 응답이 56%이고, ‘행복했다’는 응답은 44%로 나타남
 - 작년 3월 이후 ‘행복했다’는 응답이 우세한 경우는 2020년 5월 한 달에 그쳤고(이마저도 2%p 차이), 나머지 모든 달에서 ‘걱정 많았다’는 응답이 우세함
-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걱정 많았다’는 응답이 우세했으며,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18~20대, 남자 50대 △경기.인천, TK △보수층, 중도층 △자영업, 블루칼라, 학생, 은퇴.무직자 △400만원 미만 소득계층 등임
- ‘행복했다’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여자 60대이상 △충청, 호남 △진보층 △400~600만원 미만 소득계층 등임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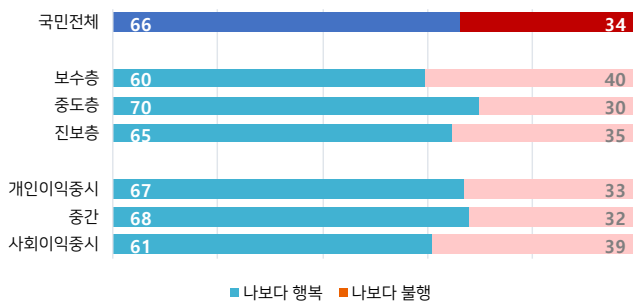
- ☑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들이 행복하기보다 걱정하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음
 - :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걱정 많았다'는 응답이 높아져, 경제 상황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 ☑ 주목되는 점은 남자 18~20대로, 이들은 모든 성/연령대에 걸쳐 '걱정 많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음
 - : 남자 18~20대는 다양한 걱정거리 속에 살아가면서, 걱정거리 제공자로서 현 정부를 지목하는 것으로 분석됨

□ 상대적 행복도 : 주변사람 '나보다 행복'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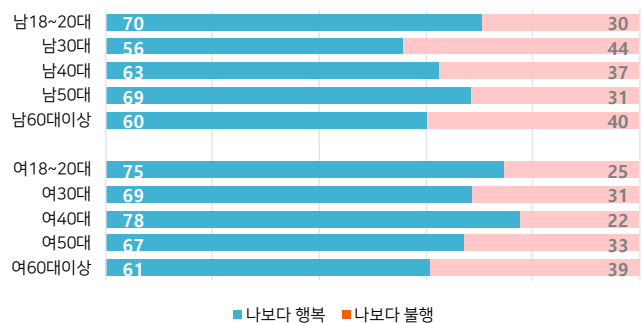
- 개인적 행복도는 44%인데 비해, 주변사람과 비교한 상대적 행복도는 이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선생님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선생님보다 행복한거 같으세요, 아니면 불행한거 같으세요?” 라는 질문에 국민 중 66%는 ‘나보다 행복한 것 같다’고 응답, 상대적 행복도가 하락함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상대적 행복도가 특히 낮은 계층(‘나보다 행복’ 응답이 높은 계층)은 △남자 18~20대 남자 50대 △여자 2040세대 △호남, TK △대학재학 학력층 △학생, 은퇴.무직자 △400만원 미만 소득계층 등임
- 상대적 행복도가 비교적 높은 계층(‘나보다 불행’ 응답이 높은 계층)은 △남자 60대이상 △여자 60대 이상 △서울 △대학원재학 이상 고학력층 △자영업자 △600만원 이상 고소득층 등임

나와 주변사람 행복 비교 : 국민전체,이념별,이익중시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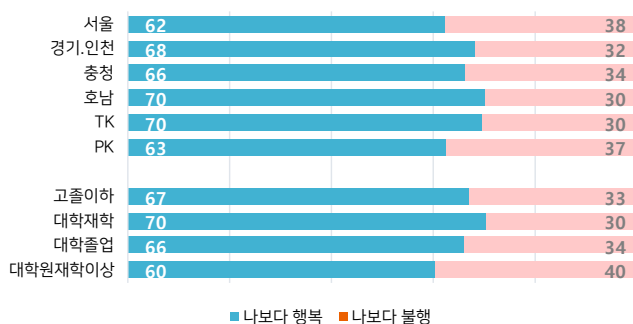
(자료:케이스탯,2021.06.06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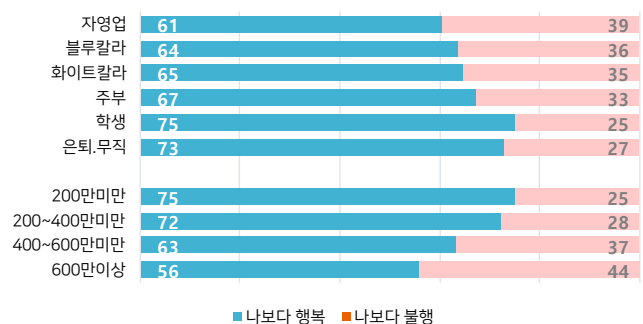
나와 주변사람 행복 비교 : 성/연령별 (2021.06.06조사,단위:%)



나와 주변사람 행복 비교 : 지역별,학력별 (2021.06.06조사,단위:%)



나와 주변사람 행복 비교 : 직업별,소득별 (2021.06.06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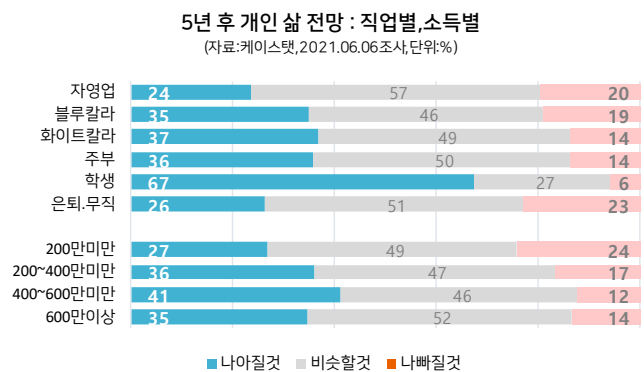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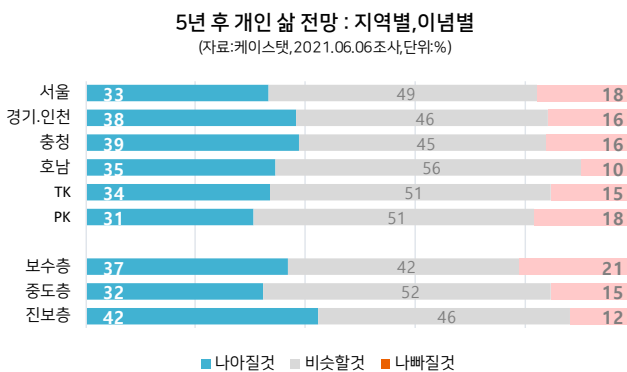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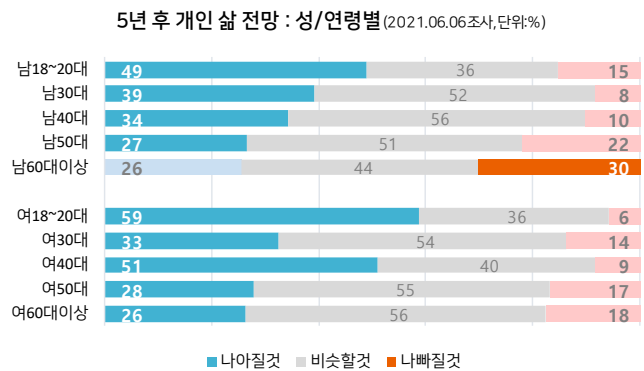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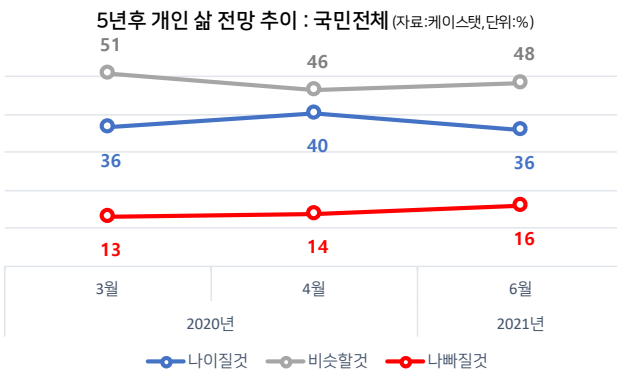


Kstat Point

- ☑ 우리 국민 대부분은 주변 사람과 비교한 상대적 행복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빈부격차 등 상대적 박탈감이 주된 요인으로 보임
 - : 남녀 20대와 여자 3040세대에서 특히 상대적 행복도가 낮음
- ☑ 또한 소득이 낮을수록 상대적 행복도가 낮아, 경제적 측면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5년 후 개인 삶 전망 : '지금보다 나빠질 것' 16%

- 5년 후 개인 삶 전망에 있어 국민 대다수는 '지금과 비슷'하거나(48%), '지금보다 나아질 것'(36%)이라고 생각함
 -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16%에 그침
-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을 제외하고 '나아질 것'과 '나빠질 것'을 비교하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2030세대 △여자 18~20대, 여자 40대 △충청 △진보층 △학생 △400~600만원 미만 소득계층 등임
-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남자 60대 이상이 유일하며, 상대적으로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높은 계층은 △남자 50대 △보수층 △자영업자, 은퇴.무직자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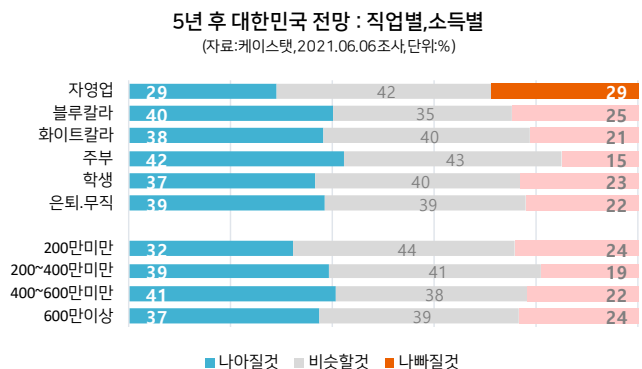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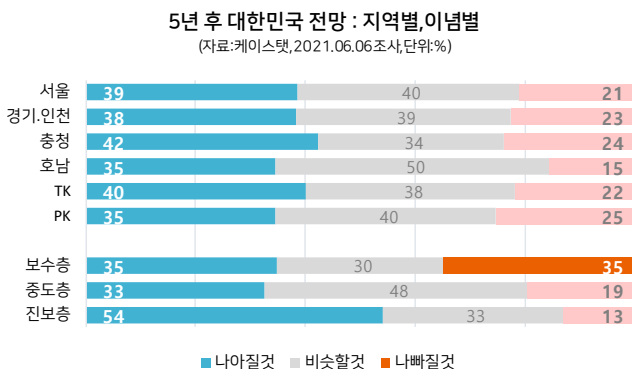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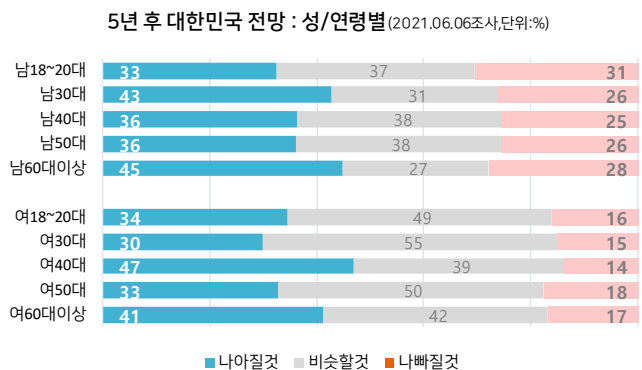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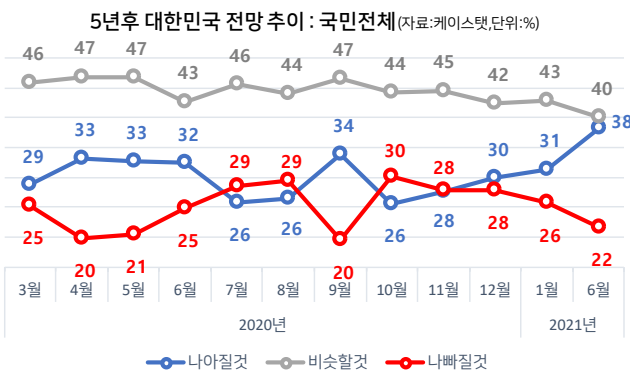


Kstat Point

- ☑ 국민들은 대체로 지금의 삶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고, 상대적인 행복도도 낮지만, 5년 후 삶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전망함
 - : 연령이 낮을수록 낙관적 전망이 높아, 미래에 대한 일정한 기대감이 작동하는 것으로 보임
- ☑ 그러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계층도 존재하는데, 이는 그만큼 현재 삶의 어려움이 커 좀처럼 희망을 갖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됨
 - : 남자 60대이상, 자영업자, 은퇴.무직자,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이 그들인데, 이들이 현재적 어려움을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임

□ 5년 후 대한민국 전망 : '지금보다 나빠질 것' 22%

- 국민들은 5년 후 대한민국이 '지금과 비슷'하거나(40%), '지금보다 나아질 것'(38%)이라고 응답함
-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22%로 조사됨
- 5년 후 대한민국 전망 추이를 보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과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교차를 반복하다, 이번 6월에는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한 양상임
- '지금보다 나아질 것'과 '지금보다 나빠질 것' 응답만을 비교하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함
-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30대, 남자 60대이상 △여자 40대, 여자 60대이상 △충청, TK △진보층 △블루칼라, 주부 △400~600만원 미만 소득계층 등임
-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 18~20대 △보수층 △자영업자 등임



Kstat Point

- ☑ 6월 조사에서 5년 후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높아진 데는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고, 각종 인센티브 정책이 발표되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임
- ☑ 한편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계층은 지금의 현실을 냉소적으로 보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임
: 남자 18~20대와 보수층, 자영업자가 대표적인데, 이들은 코로나19 종식은 물론 그 이후 대한민국 상황에 대해서도 회의와 냉소적인 태도를 나타냄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 스탓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 스탓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 스탓 리포트는 케이 스탓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 스탓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 스탓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

케이 스탓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케이 스탓 리포트 30호] 발간 안내

30호는 『‘호감’에 대한 국민인식 심층 분석』이라는 주제로 6월 24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